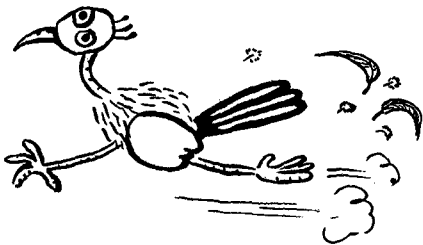


□ 설문조사/양계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불황, 무엇이 문제인가?



□ 정리/이인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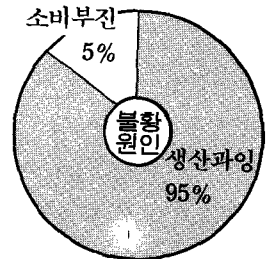
현 국내 양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양계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회에서는 지난 6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홍성에 위치한 청석수련원에서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본지는 이자리에 참석한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채란계 86명, 육계 44명 총 130명에 대해 설문지를 받아 집계하였는데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국내 양계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간다는 차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각 항목별로 분석해 본다.

(채란계)

먼저 채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 채란업의 당면과제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생산과잉 95% ② 소비부진 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양계산업에 있어서 생산과잉이 불황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95%로 나타나고 있어 생산과잉을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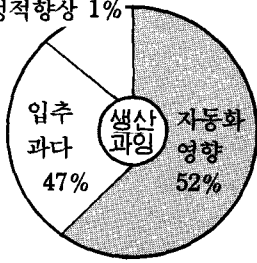
다음은 생산과잉이 된 원인을 묻는 항목에서는 ① 품종 개량에 따른 성적향상 1% ② 입추과다 47% ③ 자동화 영향 52%로 나타나 자동화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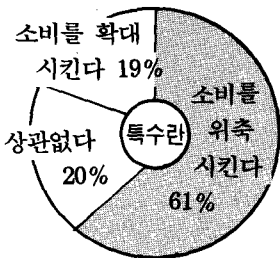
세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과잉이 되었다는 지적이 절반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입추과다로 보는 견해도 절반가까이 응답하여 이 두가지 항목을 생산과잉의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특수란이 전체 계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는 ① 소비를 확대시킨다 19% ② 소비를 위축시킨다 61% ③ 상관없다 20%

품종개량에 따른
성적향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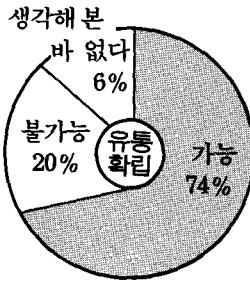


로 각각 의사를 표명하여 생산자들의 60% 이상이 특수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종 특수란들이 오히려 계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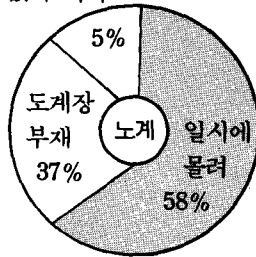
다음은 생산자들이 유통을 확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① 불가능 20% ② 가능 74% ③ 생각해 본바 없다 6%로 나타나 생산자들이 유통에 직접 참여하여 육계 계열화사업 등과 같이 체란업도 생산자들이 주도하여 유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 유통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으며 개선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가 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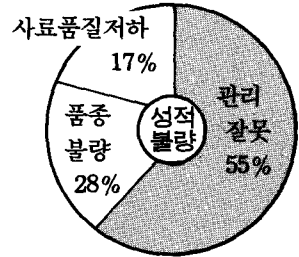
다음은 노계도태가 왜 제대로 안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① 도계장 부재 37% ② 일시에 몰려 58% ③ 값이 비싸 5%로 응답하여 난가 하락이나 노계값이 상승하면 대부분 일시에 도태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도계장 부재에 대한 응답도 37%로 나타나 국내 노계전문 도계장 활성화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값이 비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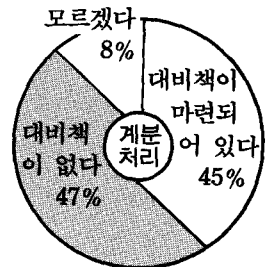


다음은 사육하는 닭의 성적이 좋지 않은 질문에는 ① 관리잘못 55% ② 품종불량 28% ③ 사료품질 저하 17%로 조사되어 생산자들이 관리잘

못으로 인해 성적이 저하되고 있다고 절반이상이 응답해 사양관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산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양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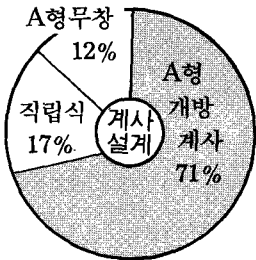


다음은 계분처리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대비책 여부에 대해서는 ①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45% ② 대비책이 없다 47% ③ 모르겠다 8%로 조사되어 최근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분 처리에 대하여 생산자들 절반 가까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아직도 50% 이상의 농가에서 계분처리에 아무런 대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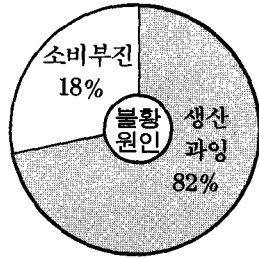
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각 농장에서 새로 자동화시설을 한다면 ① A형 무창계사 12% ② A형 개방계사 71% ③ 직립식 17%로 조사되어 비교적 사계절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양계업자들은 무창계사 보다는 A형 개방계사를 더욱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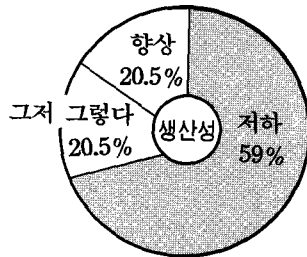


(육계)

육계분야도 채란계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현 육계업의 당면과제를 묻는 질문에 ① 생산과잉 82% ② 소비부진 18%로 조사되어 육계, 채란계 할것 없이 생산과잉으로 인해 양계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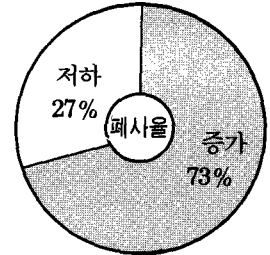


다음은 예전과 비교할 때 생산성에 대한 물음에 ① 향상 20.5% ② 저하 59% ③ 그저 그렇다 20.5%로 조사되어 최근 시설자동화를 통하여 전업화,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생산성 면에서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응답자가 59%에 이르러 있어 생산성향상에 대한 전반적이 대비책이 세워져야 할 것임을 나타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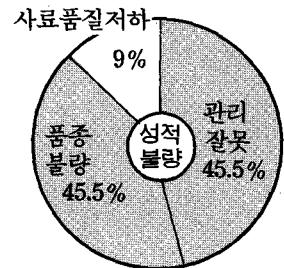


다음은 과거에 비해 병아리 폐사율에 대하여는 ① 증가 73% ② 저하 27%로 조사되어 과거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병아리 폐사율이 증가되어 가고 있어 생산성 저하가 되었다는 앞항목과 일맥

상통하고 대비책이 강구되어져야 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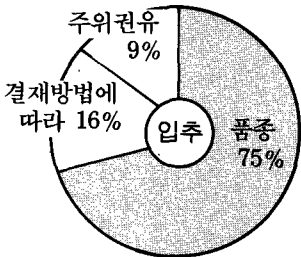


다음은 사육하는 닭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에 대한 질문에 ① 관리잘못 45.5% ② 품종불량 45.5% ③ 사료품질저하가 9%로 조사되어 사양관리 잘못과 품종불량으로 인해 성적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전체 91%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잘못과 품종에 대한 불신이 절반씩 차지하여 채란계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육계는 병아리에 대한 불신도 큰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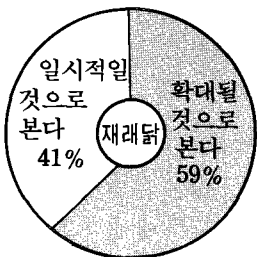


다음은 병아리를 선택함에 있어 어떤 방법을 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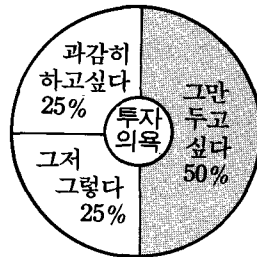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① 결재방법에 따라 16% ② 품종 75% ③ 주위권유 9%로 조사되어 병아리 선택시 농가들은 70% 이상이 품종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제조건에 따라 병아리를 선택한다는 응답도 16%나 차지하고 있어 가격에 따라 입주의 유동성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재래닭(토종닭)의 소비증가에 대해서는 ① 확대될 것으로 본다 59% ②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41%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재래닭(토종닭)의 소비가 계속증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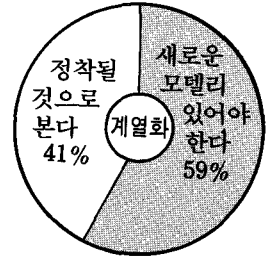


다음은 수입개방(신선, 냉장 닭고기)이후 양계업에 대한 투자욕을 묻는 항목에는 ① 과감히 하고 싶다 25% ② 그만두고 싶다 50% ③ 그저 그렇다 25%로 조사되어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계산업에 대한 투자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육계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기존계열화사업에 대하여는 ① 정착될 것으로 본다 41% ②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한다 59% ③ 안될 것으로 본다 0%로 조사되어 계열화에 대해서는 양계인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기존 계열화 형태를 다소 보완하여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계열화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절반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육계·채란계 할것 없이 시설자동화로 인해 급격히 생산이 과잉되었고, 생산성면에서도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쟁력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이 시급한 시점에서 시설자동화는 생산과잉의 원인제공과 함께 생산성도 저하되는 양상이 초래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세워져야 할 것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